

강진, 면단위 살리기 프로젝트 ‘잔걸음’

병영시장 매주 금요일 ‘불금불파’ 마랑놀토시장·오감통 음악공연 ‘하멜맥주’, ‘하멜커피’ 구입도

강진군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는 축제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오는 26일부터 ‘불금불파’를 운영한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26일 첫 개장을

시작으로 병영시장 일원에서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에 불고기 파티) 축제가 열린다. 축제장에서는 연탄돼지불고기와 국수, 한정식 등을 맛볼 수 있으며, 신나는 EDM 디제잉 쇼부터 7080, 8090, 2000년대, 최신곡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도 만나볼 수 있다. 또 강진군이 자체 개발한 핫템 ‘하멜맥주’와 ‘하멜커피’와 병영막걸리, 사또주, 쌀귀리 등 지역 대표 먹거리도 구입할 수 있다.

축제 현장의 재밌는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면 프리미엄호핑쌀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기획 중이다. 불금불파는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광주시청 기준으로 축제 현장까지 승용차로 1시간 10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퇴근 후 방문해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또 강진에서 1박을 할 경우 이튿날 강진읍 오감통 음악 공연이나 마랑놀토수산시장까지 원

스톱으로 즐길 수 있어 직장인 워크숍이나 이색 회식, 대학생·주부 모임, 가족 단위 관광객 모두에게 최적화된 관광 상품이다. 강진군청 관계자는 “병영시장에서 불고기 파티를 하고, 이튿날 마랑놀토수산시장으로 이동해 청정해역에서 막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는 것도 추천한다”고 말했다. 불금불파는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민선 8기 강진군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축제가 열리는 병영면은 전라병영성부터 한 골목 옛 담장, 하멜기념관까지 병영의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이 존재하고, 여기에 지역 대표 먹거리인 연탄불고기와 신나는 음악을 더해 관광객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군은 최근 성공적인 불금불파 개최를 위해 9개 협업 팀이 한데 모여 행사장 준비, 홍보, 교통, 안전 대책 등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강진원 군수는 “현재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한 마랑놀토도 지난 2015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진군의 고민에서 출발했다”면서 “불금불파도 민선 8기의 새로운 도전인 만큼, 병영을 넘어 강진 전체가 활력 넘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감성 총만’ 푸소체험 광주 인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한 강진 푸소(FU-SO)체험에 나섰다. 학생과 교사 등 226명이 참여한 이번 푸소 체험은 52농가에서 2박 3일 동안 시골밥상 체험으로 땀방울의 가치를 알고 타인과의 소통을 배웠다. /강진군 제공

해남, 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 연다

1만여명...9월 중 우슬경기장 지속가능 농업발전 비전 모색

해남군이 2023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사)전남친환경농업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는 1만여명의 전국 친환경농업인이 참가하는 최대규모 농업인 행사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실천 의지를 모으고 저탄소·환경친화적 산업 구조 전환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2023년 9월 중이틀에 걸쳐 해남군 우슬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남군은 개최지 공모를 통해 대회 추진 설명회와 현장 실사를 위한 시설물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개최지 선정위원회의 현지 평가에서 대회 추진 준비성, 1만명 이상 수용가능한 시설 확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규모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4,474ha를 보유한 최대 농업군으로, 지난해 전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대상과 친환경농업 업무평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전국 대회를 통해 전국 친환경농업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협력해 대회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화순, 생활체육광장수업 추진 이달부터 건강체조·에어로빅

화순군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광장수업으로 건강체조와 에어로빅을 이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이 추진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은 광장수업, 여성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프로그램교실 등 총 3개 사업으로 군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광장수업은 총 3곳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광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광덕문화광장(에어로빅), 공설운동장(건강체조), 제일중운동장(건강체조)이며, 올 10월 말까지 운영된다. 여성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프로그램교실은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며, 여성생활체육교실은 승마, 요가, 복싱 수업, 생활체육프로그램교실은 승마, 골프, 클라이밍 등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순=이종백 기자

신안, 콩 계약재배 농가 지원 박차

전년비 3배 증가...공급체계 구축

신안군이 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콩 계약재배 면적은 192ha로 지난해 63ha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 국내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지며 쌀은 매년 가격 변동이 큰 반면 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콩 재배농가와 유통가공업체간 연계를 통해 유통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해 농가들이 벼를 재배 할 때 보

다 1.5배 이상의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콩 계약재배 농가가 우수한 품질의 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읍·면 순회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군비 3억8,600만원을 지원해 우량종자 11톤을 공급했다. 또 파종기 5대, 선별용 정선기 2대 등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 지원은 물론 콩 수확 후 농협과 수매업자 출하시 kg당 400원의 수매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농가 조직화와 규모화를 촉진해 신안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함평, 영농철 농기계임대사업소 연장 운영

7월 2일까지...오전 8시로 당겨

함평군이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사진)운영시간을 연장한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농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영농철을 대비해 오는 7월 2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3곳을 연장 운영한다. 현재 함평군은 농업기술센터(본점), 동부지점(해보면), 서부지점(손불면) 등 3곳에서 콩파종기, 퇴비살포기 등 100종 456대의 농기계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임대사업소 3곳 모두 평일 개소 시간이 기존 오전 9시부터 8시로 한 시간 앞당겨 운영된다. 또,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본점에 한해 주말인 토요일에도 농기계 임대 가능다.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 1,000원~15만 1,000원이며, 최대 3일간 임대 가능하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



센터로 전화 문의를 통해 사전에 임대 가능한 농기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임대사업소 연장 운영을 통해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김태호 재경해남향우회장, 500만원 기부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재경해남향우회 김태호 회장이 500만원을 기탁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복일면 삼성마을 출신으로 복일초, 북평중을 졸업하고 상경해 인하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건설정책대학원을 수료했다. 한진중공업 토목본부장(상무이사), 삼표이앤씨 대



이인흠 장흥 장평면장, 이웃사랑 성금 기탁

이인흠 장흥군 장평면장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장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11일 장평면에 따르면 이번 기탁을 포함해 올해 장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누적 기부액은 600만원에 달한다. 기부금은 노인·아동 반찬사업, 귀농귀촌 안정화 사업,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초·중졸업생 새학기 준비지



강진경찰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강진경찰서 직원들이 강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11일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직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강진 고향사랑기부제에 성공적인 정착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응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을 강진군에 기탁했다. 이번 경찰서 응원은 앞서 진행했던

강진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이어지게 됐으며, 강진경찰서는 다음 주자로 강진소방서를 추천했다. 권석진 경찰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통해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